

한국학 기초사전류 온라인 서비스 현황과 과제

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I. 서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지구촌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조차 잊어가던 한국 문화의 심층적인 측면이 세계로 많이 알려지고 반대로 외국의 문물도 국경을 초월하여 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넘어오는 정보에 비해 외국으로 전파되는 우리의 정보는 그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한국, 중국, 일본이 경쟁하는 동북아 역사 논쟁 등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 알려진 우리의 연구 성과는 나머지 두 나라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우리의 학문적 성과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 부족한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학술교류의 성과는 기초자료의 편찬과 이를 활용하여 양산되는 다양한 번역 자료의 양과 수준에 비례한다. 이를 인식한 연구자들은 한국문화 및 한국학 연구 성과들을 세계어로 자리 잡은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현실에는 다양한 장애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한국학 용어에 대응되는 영문 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번역 및 학술 교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문 용어 표준화가 어려운 이유는 연구자에 따라 하나의 용어를 매우 다양하게 번역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에만 쓰이는 전문 용어는 대응되는 영문 용어가 없어서 해당 분야에 정통한 연구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그동안 다양한 온라인 사전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학 용어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Glossary of Korean Studies, 이하 “용례사전”으로 축약함.)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온라인 사전 서비스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

1. 용례사전 소개

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은 기존의 영어로 번역된 한국학 관련 명저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용례를 추출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학 영문 용어를 표준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17,000여개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다.¹⁾

현재 출판된 한국학 영문 용어 사전류의 출판물을 살펴보면, 우선 송기중 교수가 출판한 《한영 우리문화용어집》²⁾이 있다. 이 사전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1) 이 용례사전에는 기계적인 변환이 가능한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수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편찬한 기념비적 업적이다.³⁾ 이 용어집에 수록된 항목 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갑신정변 | 甲申政變 | Gapsin jeongbyeon | Kapshin chöngbyöŋ | <polit., Chosön>, "Political Disturbance of (the Year) Kapshin"; Coup d'Etat of 1884.

하지만 이 저작은 다음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서적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수록된 용어가 적다. 특히 여기 수록된 표제어 중 기계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인명과 지명을 제외하면 수록 용어는 더욱 줄 수밖에 없다. 둘째, 위의 예에서 보듯이 명사만을 표제어로 선정함으로써 한국학 용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영어의 명사로 대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의 명사는 명사로 바로 대치되지 않고 영어의 문장의미 속에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번역 예문이 제시되지 않은 데서 오는 한계이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역사용어 영문 시소러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역사분야 용어의 영문 대역어를 추출함과 아울러 그 관련어를 같이 추출하여 사전 DB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편, 역사분야 지식정보 검색시 “검색어 확장”에 이용되는 시소러스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⁴⁾ 그런데 이 자료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첫째, 용어가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용어에 하나의 대표어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어가 완전히 공인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둘째, 용어를 추출한 전거와 예문을 밝히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외 한림(Hollym) 출판사 등에서 분야별 문화사전이 편찬된 바는 있으나, 전거 없이 단어의 영문 해설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번역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학 용어와 영문 용어는 단어와 단어가 1:1로 대치되기도 하지만, 단어 대 문구로 대응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역어 또는 용례를 포함하는 완전한 문장이 전거와 같이 제시되어야 올바른 용례를 알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 및 소수 연구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가 장기간 지속되고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가 계속 축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의 연구만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재원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 개별 연구자보다는, 연구기관에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을 간단히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2. 용례사전의 기능

1) 다양한 검색

2) 송기중, 《한영우리문화용어집》(지문당, 2001).

3) 송기중 교수 외에 1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용어를 선정하고 정리하였다. 송기중, 한영우리문화용어집 서문, 《한영우리문화용어집》(지문당, 2001).

4) “검색어 확장”이란 검색엔진에서 “임진왜란”을 검색할 경우, 시소러스 사전에 임진왜란의 관련어로 등록된 “임란”, “이순신”, “유성룡” 등도 자동적으로 검색어로 포함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http://thesaurus.history.go.kr>

온라인 사전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다양한 방식의 검색 기능이다. 이용자는 용어를 검색할 때 해당 용어 하나만 검색되길 원할 수도 있지만, 관련된 다른 용어도 같이 원할 수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도 이같은 취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한글, 한자, 영문 등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관련어를 검색하여 제시해 준다. 즉, 한글로 “청자”를 검색하면 한자인 “靑磁”도 같이 결과로 제시해 준다.

그리고 정확한 단어를 모를 때 단어의 일부만 질의해도 관련어를 같이 제시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자”를 검색하면 고려청자(高麗靑磁), 금채청자(金彩靑磁), 동화청자(銅畫靑磁), 비색청자(翡色靑磁), 상감청자(象嵌靑磁), 상형청자(象形靑磁), 순청자(純靑磁), 음각청자(陰刻靑磁) 등 “청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다양한 단어를 같이 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검색되는 결과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lossary of Korean Studies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

전체보기 / 게시판 / 소개의 글

SEARCH 전체 검색 GO 현재 카테고리 내에서

가사(歌辭), gasa

한글	한자	문화관광부 지정표기	M/R표기	시대
가사	歌辭	gasas	kasa	고려

- **영문 의미 1:** Old form of Korean verse
 - **용례 1:** In 1580 he was appointed gwanchalsa (governor) of Gangwon-do and exhibited his talent as an authority of both sijo (Korean verse) and gasa (Old form of Korean verse) literature by writing sixteen pieces including *Gwandong byeolgok (Song of Gwandong)* and *Hunmin-ga (Song of Instructing the People)*.
 - **출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한국백과》-정철
- **영문 의미 2:** the narrative poem
 - **용례 2:** There was the narrative poem called kasa and a much more popular form, the short reflective lyric called sijo, comparable in form to the Japanese haiku.
 - **출전:** Han Woo-Keun, translated by Kyung-Shik Lee, *The History of Korea*, Eul-Yoo Pub, 1970, p.332.
- **영문 의미 3:** prose-poetry
 - **용례 3:** A kind of prose-poetry, the kasa normally was written in parallel lines each consisting of two four-syllable semantic units, its form thus exhibiting characteristics of typical Korean lyric verse.

“가사(歌辭)”의 영문 용례 사례

2) 다양한 용례와 전거 제시

한 용어는 타국어로 번역될 때 다양한 사례를 보인다.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은 이러한 사례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용례사전에서 “가사(歌辭)”를 검색하면, narrative poem⁵⁾, old form of Korean verse⁶⁾, prose-poetry⁷⁾의 세 가지 번역 사

5) Han Woo-Keun, translated by Kyung-Shik Lee, *The History of Korea*, Eul-Yoo Pub, 1970, p.332.

6)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한국백과》-정철(출간예정).

7) Ki-baik Lee,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례와 이 용어들이 추출된 전거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하나의 용어에 대한 표준 대역어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번역 용례를 제시해 주면 그만큼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다.

3) 효율적인 자료 관리

온라인 사전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효율적인 자료 관리 기능이다. 자료관리란 자료의 오류를 신속히 수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적은 한 번 출판된 후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를 수정하여 새로 출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배포된 서적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사전은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오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 명의 이용자가 같이 검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서적으로 된 사전은 이러한 공동 작업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사전만이 가능하다. 즉, 수많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는 책과 다른 온라인 사전만이 가지는 장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에서는 이용자 의견란에 올라오는 요청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 자료 구조

편리한 온라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에 수록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체제에 따라 자료가 구축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용어의 양적 확장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구분		예시	비고
표제	한글	훈민정음	
	한자	訓民正音	
분류	시대	조선	
	주제	문헌	
로마자 표기	문광부	Hunmin jeong-eum	
	M/R	Hunmin chǒng'ŭm	
영문 대역 사례	대역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le	
	예문	Promulgated in September or October 1446, Hunmin Jeongeum (The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le) was an entirely new and native script for the Korean people.	
	출전	Ki-baik Lee,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165.	

① 표제: 한글 검색 및 한자 검색을 위해 한글 및 한자로 표제어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동음이의어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분류: 해당 용어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시대와 주제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는 용어의 분야 구분과, 추후 분야별 용어사전을 편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③ 로마자 표기: 특수한 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해당 단어의 로마자 표기를 같이 써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미묘한 차이를 영어의 의미역으로만은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기백 교수의 A New History of Korea에서는 훈련도감을 Military Training Command로 번역하고 있고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출간 예정인 □□영문한국백과□□에서는 훈련원을 Military Training Command로 번역하고 있다⁹⁾. 훈련도감과 훈련원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의 영문 번역은 같다. 따라서 훈련도감은 Military Training Command (Hullyeon dogam)로 훈련원은 Military Training Command (Hullyeonwon)로 표기해야 독자의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글 로마자 표기를 위해 현행 문화관광부 표기법(2000)과 맥킨-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system)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메킨-라이샤워 표기법은 1930년대 후반 평양 송실전문학교 교장이던 선교사 메킨(George M. McCune)이 일본학 연구자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와 함께 만든 한국어 로마자 표기 체계로, 현재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메킨-라이샤워 표기법은 우리의 발음을 그대로 옮기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로 한글 로마자 표기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여러 번 개정되어 왔다.¹⁰⁾ 우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가 개정 고

8) Ki-baik Lee,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225.

9)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한국백과□□- “과거” 항목.(출간예정)

10) M/R System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지명과 성씨들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한글의 “ㅈ”을 “ch”로 표기한다. 그런데 문체는 “ㅈ”의 표기도 “ch”이다. 때문에 성씨 조씨를 “cho”로 표기하면 외국인은 이를 “조”로 읽을

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2000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다시 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과로 보면 현행 규정도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계에서 현행 규정이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개정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고,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측되는 부분이다.¹¹⁾ 무엇보다 완벽한 한글 로마자 표기가 우리 언어의 특성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 개정 논의는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 표기방식이 고정되어 있고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메퀸-라이샤워 표기법은 당분간 계속 활용될 것이기에 같이 제시하였다.

④ 영문 대역 사례 : 직역어(直譯語)와 의역어(義譯語) 형태의 영문 의미역을 포함한 완전한 문장을 같이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매우 다양한 용례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용례 사전의 목적도 바로 이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줌으로서 번역자들에게 보다 가까운 용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소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해방 후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최초로 집대성한 사전이자 한국학 연구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편찬된 백과사전은 개념 용어, 유물 유적, 향토, 지명, 서명 등의 기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6만 5천개 이상의 항목¹²⁾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전은 서적이란 물리적 한계로 인해 2001년에 1차 수정 증보판을 CD-ROM판으로 편찬했다. 그런데 현재 지명도 있는 백과사전들은 범 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온라인 서비스로 이전해 가는 추세에 있다.¹³⁾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과 쏟아지는 연구 성과들을 방대한 종이 사전에 신속하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온라인 사전은 양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백과사전도 이러한 물결을 타고 민간 포털인 엠파스(empas)와 협력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수도 있고 “초”로 읽을 수도 있다.

- 11) 2005년 2월 국어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국어의 영문표기 사용에 관한 혼란을 막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12) 이하에서는 '항목'과 '표제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 13) 세간에 가장 잘 알려진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 □□동아 대백과 사전□□도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서비스(encykorea.aks.ac.kr) 화면

2.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특징

1) 항목간 하이퍼링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6만 5천여개의 방대한 항목으로 집필된 후 29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이 온라인 서비스용 콘텐츠로 이전되면서 각 항목의 내용중에 나오는 단어는 다른 항목과 하이퍼 링크(Hyper Link)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훈민정음 [訓民正音]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 전권 33장 1책. 목판본. ...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

예를 들면 위의 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백과사전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항목이 제시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해당 항목을 바로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를 보다 더 구조화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사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다.

2) 멀티미디어 자료 연계

서적으로 출판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사진과 도표가 유일하면서도 가장 생생한 멀티미디어 정보였다. 그러나 CD-ROM판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온라인 사전으로 진화하면서 멀티미디어 자료가 대량으로 추가되어 콘텐츠의 이해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진 40,000여 건, 도면 3,500여 점(pdf 392장, 이미지 2,600여 장, 대동여지도 1,000장), 동영상 500여 중, 음향 1,000여 중, 멀티미디어 정보 해설 50,000여 중 등이다. 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특징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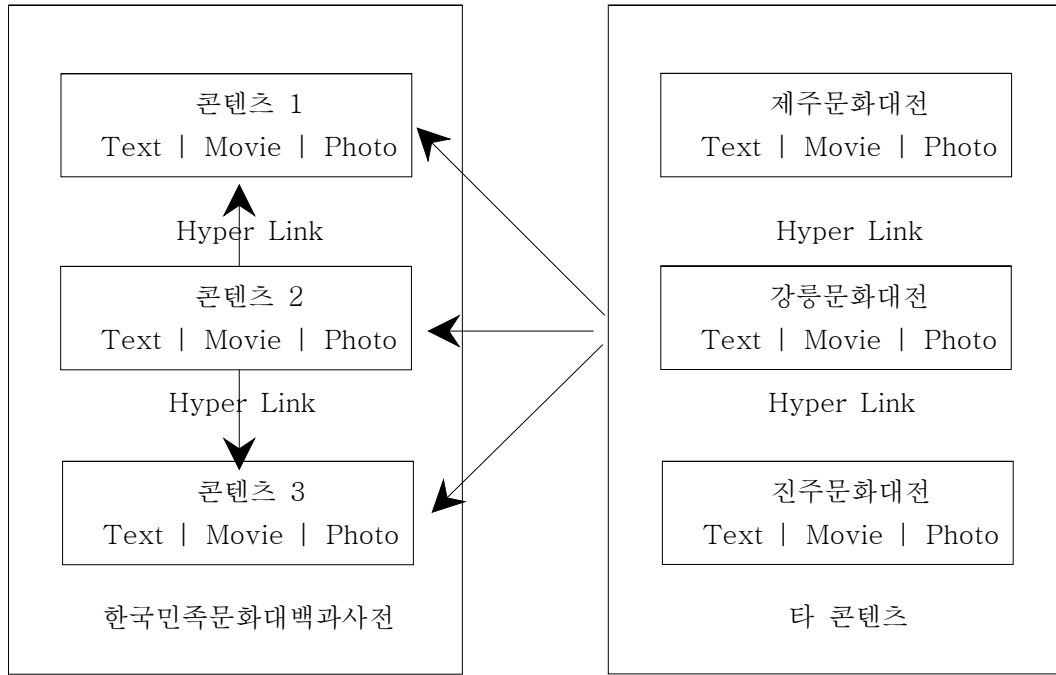


“하회별신굿탈놀이” 항목의 탈놀이 사진

3) 타 지식정보와 연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콘텐츠 항목간 연계와는 반대로, 다른 콘텐츠에서 백과사전의 콘텐츠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하나의 사례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향토문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 분석하여 디지털화하고, 시군구별 디지털 향토문화대전을 통합 구축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¹⁴⁾ 이 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제공하는 특징적인 서비스중의 하나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과의 연계서비스이다. 즉, 향토문화전자대전 콘텐츠를 열람하다가 관련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콘텐츠로 바로 이동하여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기능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 개념도

IV. 용례사전 및 백과사전 구축의 방향

1. 용어 용례사전 구축의 방향

1) 기본용어 확충

용어에는 기본 용어(basic term)가 있고, 파생 용어(extended term)가 있다. 기본 용어는 각종 보조 용어와 조합하여 다양한 용어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사전에는 3도통어사(三道統禦使)와 통어사(統禦使)가 각각 별도의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선 많은 용례들을 우선 축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형인 통어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변형하여 만들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객주는 또 그들이 다루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청과객주(靑果

14) 김현, 「사업추진 방향 및 정보편찬 체계」, □□디지털종로문화대전의 편찬과 개발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2005년 2월 16일.

客主)는 채소와 과일을 취급하고, 수산물객주 또는 해산물객주는 어류·해초 등 바다에서 나는 품목을 취급하고, 곡물객주는 곡물을 다루었다.

Gaekju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other types including Cheonggwa gaekju(market brokers who dealt with fruit and vegetables), Susanmul gaekju(market brokers who dealt with marine products like fish and seaweed) and Gongmul gaekju(market brokers who specialized in dealing with grain), according to the kinds of goods they handled.¹⁵⁾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객주(客主, market broker)에 대한 용어가 정리되면 청과객주, 수산물객주, 곡물객주 등 수많은 파생용어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유용하고 진전된 용례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용어와 그 용례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집 정리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기본 용어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 사전을 구축하면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 과제로 남겨 둔다.

2) 전문 용어 용례 확충

국가간 학술 교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려면, 전문 용어 용례들이 영문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학영문용어용례사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많이 볼 수 있으나 전문 용어의 용례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청자(靑磁)의 경우 blue-green celadon porcelain, blue celadon porcelain, celadon ware 3개의 용례가 추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청자상감포도문베개(靑磁象嵌葡萄文枕, Inlaid celadon pillow with grape design)’와 같은 류의 용어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번역하여 외국에 보급하는 자료들을 보면, 일반적이고 평이한 소개 정보가 대부분이고, 각종 쟁점을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깊이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실상 자료 번역을 통한 국가간 학술 교류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학문 연구 성과의 핵심을 담고 있거나 쟁점을 수반하는 부분일수록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전문 용어 정리는 단순히 학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적 논쟁이 국가간 갈등과 결합할 경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외에 알리지 못한 측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자료를 번역하여 소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전문 용어 용례를 꾸준히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송기중 교수도 지적하듯이 전통 음악 관계 용어, 삼국 초기 관직명 등 일부 분야의 용어는 번역이 불가능하다.¹⁷⁾ 이러한 것은 내용 설명을 붙여 우리 용어 발음 자체를 공식 용어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동의어 및 관련 용어 사전 구축

한글 용어의 측면에서 다양한 동의어를 추가하여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한국백과》-객주.

16)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병행 표기하는 영어권 웹사이트는 2004년 12월 2천여 곳에서 19일 현재 8만1천500 곳으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치밀한 대외 홍보 전략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8년 5월 19일자.

17) 송기중, 《한영우리문화용어집》, 지문당, 2001, 범례 18쪽.

다. 예를 들어 봉화(烽火)를 검색하던 봉수(烽燧)를 검색하던 이에 해당되는 영문 의미인 'beacon fires'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용어를 다양하게 부르는 사례에는 갑오경장[갑오개혁] 등 많은 사례가 있다. 이같은 문제는 용어마다 동의어 필드를 두고 여기에 별도로 동의어를 수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4) 한글 예문 제공

용어가 포함된 영문 예문에 대응되는 한글 예문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용례의 정확한 쓰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단어가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명사는 영어에서는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 속에서 이해될 때가 많다.

그리고 예문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면 표제어에 없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용어를 표제어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표제어가 아닌 용어도 다른 표제어를 설명하는 예문에 나올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한글 : 그는 1592년부터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였다.

영문 : He worked for a government form 1592.

이 경우 “조정”이나 “출사”가 영문 용어와 직접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가 어떤 식으로 번역되는가를 보려면 전체 예문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예문 검색을 통해 용어가 번역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5) 정의(definition)의 제공

한국 용어에는 한글과 한자가 같으면서도 의미가 전혀 다른 용어들이 많다. 한국인들도 한글과 한자 모두 같은 용어의 의미를 단어만 가지고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과 한자 표기가 같은 중추원(中樞院)이라는 기관은 우리 역사에 4가지가 존재한다. 국어사전에 정의된 중추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추원(中樞院)

1. 고려 시대에 왕명의 출납(出納), 군기(軍機), 숙위(宿衛)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
2. 조선 전기에 왕명의 출납, 군정(軍政) 등을 맡아보던 관아로 후일의 중추부(中樞府).
3. 대한 제국 때에 의정부(議政府)에 속한 내각의 자문 기관.
4.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자문 기관.¹⁸⁾

중추원 외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는 무수히 많다.¹⁹⁾ 이상에서 보듯이 서로 하는 일과 역할이 달랐던 4개의 중추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있어야 한다. 이는 “용례”에 중점을 둔 현재의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이 ‘사전’으로서의 형식을

18)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1.

19) 예를 들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와, 훈민정음을 해설한 내용을 기록한 서명(書名)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영문 의미역은 달라진다.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가 영문과 한글이 같이 제공되면 이상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 영문 용어 용례 사전 자료구조안

구분		예시	비고
표제	한글	훈민정음	
	한자	訓民正音	
분류	시대	조선	
	주제	책	
정의	국문	세종대에 정인지 등이 편찬한 훈민정음 해설서	○
	영문	A guide book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n King Sejong Era.	
로마자 표기	문광부	Hunmin jeongeum	
	M/R	Hunmin chŏng'ŭm	
영문 대역 사례	대역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le	
	예문	Promulgated in September or October 1446, Hunmin Jeongeum (The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le) was an entirely new and native script for the Korean people.	
	한글 예문	1446년에 반포한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은 한국인을 위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문자였다.	○
	출전	Ki-baik Lee,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p.165.	
동의어	한글, 언문, 반절	○	
관련어	석보상절, 훈몽자회	○	
URL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K&i=255647	백과사전과 연계	

“○” 표시된 부분이 향후 추가되어야 할 부분임

2. 백과사전 구축의 방향

1) 콘텐츠 형식의 표준화

우선 원고량의 적절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한 항목이 차지하는 내용 분량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물 항목의 실례를 보면 백과사전에 실린 ‘이순신’ 항목은 원고지 62매, ‘세종’ 항목은 73매인 반면, ‘가라포고이’ 같은 인물은 원고지 3매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인물의 역사적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종’ 한 인물을 기술하기 위해 백과사전을 5페이지 할애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점은 인물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한 예로 “불교” 항목은 “세종” 항목보다 원고량이 더 많아 원고지 500매를 상회한다. 유교, 천주교 등의 항목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많다. 지나친

항목간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항목의 구성을 표준화하여 내용을 줄임과 아울러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련 항목과 연계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

2) 분야별 용어 사전과 연계

백과사전은 그 자체로 지식 정보의 창고라 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전과 연계함으로써 그 가치를 배증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이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다른 정보와 실시간에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어만으로 정보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백과사전에 수록된 보다 상세한 정보나 각 학문 분야별 용어 사전과 연계함으로써 용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현재 백과사전의 표제어는 한글과 한자로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영문 표제어도 같이 제공해 줌으로써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현행」

훈민정음 [訓民正音]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 전권 33장 1책. 목판본. 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 소장. 9월 상한(上澣)에 완성되었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

「개선안」

훈민정음 [訓民正音, Hunmin jeongeum²⁰⁾]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鄭麟趾) 등이 세종의 명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 전권 33장 1책. 목판본. 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 소장. 9월 상한(上澣)에 완성되었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

V. 결론

한국학 연구 성과를 세계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초 사전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세계어라 할 수 있는 영어로 자료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영문 번역의 토대가 되는 영문 용어 용례사전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가 번역되고 공유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전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그 이용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상에서 의미 있는 온라인 사전 구축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실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강구할 수 있다. 첫째,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여러 연구자들이 공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20) “Hunmin jeongeum”을 클릭하면 영문용어 용례사전의 해당항목으로 링크됨.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다양한 사전과의 연계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Han Woo-Keun, translated by Kyung-Shik Lee, The History of Korea, Eul-Yoo Pub, 1970.
-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lo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Ki-baik Lee,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Lee, Iksop and Robert Ramsey, The Korean Language,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M.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Nam Sang-suk & Gim Hae-suk, Intr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국립한국예술종합대학교 전통예술원, 2002.
- Neo-Confucian Terms Explained(The Pei-hsi tzu-i).Ch'en Ch'un (1159- 1223). Tran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Wing-tsit Ch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 Peter H. Lee,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Volume 1, 2),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Robett E. Buswell, The Zen Monastic experience : Buddhist practice in contemporary Ko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송기중, 《한영우리문화용어집》, 지문당, 2001.
- 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한국백과》(출간예정).
- <http://www.aks.ac.kr/glossary>
- <http://encykorea.aks.ac.kr>